

관광·꽃 치유·음식 개발...청년들 장성의 희망 쏜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동체 3개팀 출범식 본격 활동 청년들 지역사회 활동 주제 육성

장성 발전을 이끌어갈 지역 청년들이 뭉쳤다. 장성군은 지난 9일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장성군 청년공동체 3개 팀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명신 장성부군수 등 군 관계자와 장성군 청년협의체 소속 위원들이 함께 했다.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사업'은 청년을 지역사회 활동 주제로 집중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장성군은 앞서 지난 11월 '허브푸드', '꽃드림', '요리조리' 3개 청년공동체를 최종 선정했다.

'허브푸드'는 장성의 중심(허브, hub)으로 청년들이 들어가 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 '꽃드림'은 원예활동을 통해 주민들의 우울감과 스트레스 치료를 돕는다. '요리조리'는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청년 농업인 모임이다. 특색 있는 지역 먹거리를 개발하고, 청소년 대상 요식업 교육 프로그램을



지난 9일 장성군 청년공동체 3개 팀이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나섰다.

<장성군 제공>

로그로도 운영한다.

군은 이날 출범식에서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참여에 관한 세부사항을 청년들에게 안내했다. 이어서 장성군 3기 청년협의체 위원과 간담

회를 갖고 청년 정책, 지역 내 활동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장성군 청년협의체는 청년 문제 발굴과 의견 수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모임이다. 김명신 장성부군수는 "사업기간 동안 평소 구상

했던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펼쳐주시기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이 필요로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강진 개똥이네농장 '찐TV' 탄다

군, 농수특산물 콘텐츠 홍보

영상제작 지원...온라인 판로개척

강진군이 농수산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생산자 맞춤형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유튜브 등을 이용한 온라인 판로 개척에 나선다.

군은 생산자 맞춤형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직접 지원하고 강진군 공식 유튜브 '찐TV'와 SNS에 게시해 소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시도하며, 제작된 콘텐츠와 생산자의 판매 사이트를 연계할 계획이 있다.

촬영은 강진군 농수특산물 생산판매자를 대상으로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한다.

4차산업혁명지원팀이 생산 현장을 방문, 질문을 통해 상품의 우수성과 생산과정을 소개하고 귀농·귀촌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생산판매자로

서 강진 농어촌 생활 '꿀팁'을 공유한다.

영상 말미에는 생산자로서 이루고 싶은 꿈을 공개해 생산물에 대한 진정성까지 전달하며, 출연자가 다음 출연자를 지목하는 릴레이 인터뷰로 형식으로 제작해 농수특산물 생산자들이 강진에서 이뤄내고 싶은 꿈을 지속적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첫 영상 제작에 참여한 박정웅 씨(개똥이네농장 대표)는 "첫 번째 인터뷰 대상자가 된 것에 대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유튜브 홍보가 중요한 건 알지만 농작물을 생산하면서 콘텐츠까지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주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현재 상용화된 4차산업혁명 기술을 관광, 유통, 마케팅 등 군정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활성화함으로써 지역민의 소득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



강진군이 지난 13일 개똥이네농장 대표 박정웅씨의 홍보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를 고민하는 우리에게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는 관계 인구를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며 "농어업인들의 열정과 강진만의 색깔을 담아 농어가의 소득과 관계인구를

늘릴 수 있는 콘텐츠를 지속 생산해 온라인 판로 개척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강진만의 경쟁력을 갖춰 농가소득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진 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함평군-영산강사업단, 농업용수 확보 '맞손'

가뭄 위기 극복 업무협약 체결

함평군이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과 가뭄 위기 극복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함평군은 "가뭄 장기화에 따른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이날 오전 군수실에서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협약식에는 이상의 함평군수, 김신환 한국농어촌공사 영산강사업단장,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영산강IV지구 대단위 농업개발사업(5공구) 함평군 구역 내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군은 농업용수 공급이 필요한 지역을 파악해 공사에 요청하고, 용수 공급에 소요되는 전력비, 인건비 등의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공사는 군으로부터 농업용수 공급 요청 시 적극 협조하는 한편 원활한 공급을 위해 용수관로 등 시설물을 점검·정비하고, 시설물 조작법 등 현장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협약으로 내년 영농기 전까지 함평, 손불, 신광, 대동, 엄다 등 약 2199ha의 농지에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

장흥군, 생물의약품 산업 통합협의회와 업무협약

공동 연구 확대·특색사업 발굴

장흥군이 최근 장흥군 생물의약품 산업 통합협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3일 열린 업무협약에는 장흥군, 한국한약진흥원, 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 원광대학교 장흥통합의료병원이 참여했다.

업무협약 내용은 생물의약품 발전에 관한 정책제안 및 사업발굴 등 상호협력 체계 구축, 기술자문 및 정보 공유,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및 지역경

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협약기관들은 각각 기관들이 각자 연구해왔던 연구 성과와,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시설, 그리고 박사급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교류 협력해 공동 연구를 확대하고 특색사업을 발굴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협약으로 바로 내년 시범사업을 발굴 실시하는 등 3개 연구기관과 1개 병원이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됐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부장 kykim@



화순경찰, 다중시설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겨울철 화재·안전사고·범죄예방

화순경찰은 지난달 28일부터 9일까지 2주에 걸쳐, 화순소방서·화순군청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다중이용시설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합동 현장점검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철에 대중목욕탕·요양병원·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사고·범죄 등 다중밀집에 따른 대형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계

획에 따라 진행됐다. 화재·안전사고·범죄 등 예방시설물과 비상대피로 등을 점검하고, 업주의 관심도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이창열 화순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장은 "요양병원이나 대중목욕탕 등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시 많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다"며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한 주기적인 점검으로 화순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가족친화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재인증 받아

나주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 됐다.

나주시는 최근 여성가족부 '가족친화 인증기관'으로 재인증돼 오는 2025년 11월까지 가족친화 우수기관 자격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가족친화 인증기관은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을 모범적으로 운영 중인 지자체·공공기관·기업 등을 여성가족부에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나주시는 2017년 최초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이래 2020년 연장심사를 거쳐 올해 재인증 심사까지 연이어 통과하며 소속 직원들의 일·가정 양립에 힘쓰는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시는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하는 '가족사랑의 날', 유연근무제도 및 모성보호·육아시간을 보장해 직원들의 육아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임신 또는 5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별도 연가 사용 없이 하루 2시간 씩 모성보호·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여기에 직장어린이집 운영, 가족 휴양시설 이용 지원, 슈퍼맘&다디 워라벨 힐링교실(직장교육) 등 각종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도 꾸준히 운영해오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가정이 편안해야 매사가 잘된다는 격언이 있듯이 앞으로도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을 통해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확산할 수 있도록 제도, 사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주=손영철 기자 ycsn@kwangju.co.kr

강진군 소하천 정비

안정적 영농 활동 기대

강진군이 소하천 정비로 농민들의 안정적 영농 활동을 돕는다.

강진군은 재해예방(복구)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작전면 갈동천 및 신전면 수양천 정비사업으로 기존 소하천에 제방을 보강하고, 퇴적토 준설, 배수문 정비 등 2023년까지 연차적으로 기반시설을 정비·확충한다고 밝혔다.

2021년 2월 착공한 갈동천은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해 작전면 갈동리 및 군자리에 연장 0.6km, 교량 4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2022년 6월 착공한 수양천은 신전면 수양리에 연장 0.44km, 교량 3개소, 수로교 1개소를 내년까지 마무리한다. 지난 2021년 7월 5일부터 8일까지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로 인해, 총사업비 15억원 중 국비를 50% 지원받았다.

이번 사업의 시행으로 상수 침수 지역이던 농경지의 피해를 예방하고 일부 농로 확장 및 교량 재가설로 안정적인 영농 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군 관계자는 "공사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는 일부 차량통행에 불편이 생길 수 있으나 사전 고지를 통해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주민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

화순군, 호우 유실 삼천교

왕복 4차선 재가설 개개통



화순군이 지난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유실된 삼천교의 재가설 공사를 완료하고 재개통했다.<사진> 재개통된 삼천교는 총 사업비 72억 원을 투입,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길이 96m, 폭 18.5m의 교량을 재가설하고 접속도로 99m를 개선했다.

다리 폭도 기존 8m에서 18.5m로 늘리고 왕복 4차선으로 확장했다. 차도와 함께 보행로 도로를 구분해 주민 교통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경관조명도 설치해 야간 불거리도 제공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삼천교 개통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쾌적한 도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

강진군 예산 7000억원 시대 눈앞

5회 추경예산안 6756억원 편성

강진군이 예산 7000억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5회 추경예산안 6756억원(일반회계 6544억원, 특별회계 212억원)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다.

지난 4회 추경 예산보다 5.98%, 382억원(일반회계 379억원, 기타특별회계 3억원) 증액됐으며, 올해 당초예산 4411억원 대비 53.1%가 늘어난 금액으로 예산 7000억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는 국도비 확보를 위해 예산 신청부터 확정까지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과 주민들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중앙부처를 발로 뛰며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예산을 확보한 결과물이라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223억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118억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 국도비 보조금 25억원, 전년도이월금 10억원 등 세입 오차 최소화를 위해 추계치를 검토하고 정리해 편성했다.

특별교부세는 33억원으로 백운동 원림 전사관 주변정비사업 8억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 10억원, (구)목리고보수·보강사업 11억원, 강진읍-군동면 노후상수관로 교체사업 4억원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추가로 편성된 예산은 국·도비 사업 5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군비 부담분 18억원, 국·도비 반환금 10억원 등 의무적인 경비와 사업 마무리를 위한 부족 예산 등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위주로 최소화해 편성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h@kwangju.co.kr